



## 북아일랜드 GPS컬러, 물러마티니 벤추라MC 도입 216년의 전통과 최첨단 장비의 고품질 서비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지역에 위치한 GPS컬러그래픽은 인쇄부터 후가공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 최초의 회사다. 최근 물러마티니의 사철기 벤추라MC를 설치하고 성공적인 내구성 테스트를 마쳤다.

자료제공 | 물러마티니코리아

1797년 조셉 스미스에 의해 창립된 GPS컬러는 216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역사가 이렇게 길어도 굉장히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쇄의 힘을 위해'라는 사훈 아래,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 고루 퍼져 있는 고객들의 사철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GPS컬러는 몇 달 전, 물러마티니의 신형 사철기 벤추라MC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 내부 가치 높이는 투자 단행

경영자인 이안 맥커리씨는 "고객의 사철 주문을 더 이상 거절하고 싶지 않아 두 가지의 옵션을 고려했다"라며 "업무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거래하는 후가공 작업자에게 부탁하거나 작업장에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고민의 대상이었다. 마감일이 불확실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배송까지 2주나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 덕분에 2012년부터 GPS는 두 대의 매엽기와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함으로써 인쇄 및 후가공 전문 회사로 거듭났다. 또한 북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PDF파일로 원고를 받아서 인쇄하고 완제품인 양장책을 생산해 배송작업까지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맥커리씨는 "훌륭한 품질의 상품을

마감기한 내에 생산할 수 있고,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신규 시장·새로운 작업 도전

### 신규 시장·새로운 작업 도전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던 것만큼이나 어떠한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빨리 내려졌다. 사업개발팀장인 헬렌 맥클레이씨는 "솔직히 얘기하면 물러마티니지사 대표 맥긴리씨와 마이클 머피씨의 벤추라MC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마음이 정해졌다"면서 "물러마티니 브랜드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무한

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워 포인트 발표만 보고도 기계 도입을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 가동을 위한 내구성 테스트

벤처라MC에 관한 발표를 듣고 가진 긍정적인 느낌은 지난 3월 시운전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됐다. 표지와 20장의 내지를 포함해 240×165 규격과 한 권에 616페이지에 달하는 1만1000부의 책을 시운전으로 제작했다. 세계 각지의 고객들이 벤추라MC의 시운전을 직접 보기 위해 GPS컬러를 방문했다. 맥커리는 “사철기가 완벽하게 가동됐고 책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성공적인 벤추라MC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벤추라MC는 첫 3주 동안 하루 12시간씩 가동해도 사소한 문제없이 작업을 훌륭히 끝마쳤다.

### 2~50mm의 폭 넓은 작업 범위

4교대로 7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벤추라MC의 두 판 생산으로 인한 뛰어난 생산성과 다양한 크기의 책등 작업 유연성에 크게 매료됐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수익률을 두 배로 올리고 20개의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 GPS컬러는 벤추라MC를 활용해 3장의 내지가 포함된 2mm의 책에서부터 50mm에 이르는 책을 생산한다.

벤처라MC는 아직 디지털 인쇄로 생산되는 책을 만드는 데는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맥클레이씨는 디지털 인쇄로 생산되는 책에도 벤추라MC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라 사철 기계가 뛰어난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 다양한 사이즈·높은 생산성

벤처라MC 사철기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크기의 양장, 무선 책을 아주 높은 품질로 생산한다. 두 판 생산과 뛰어난 생산성 덕분에 벤추라MC는 22g/㎡ 종이부터 다양한 북블럭 공정을 처리

할 수 있다. 공기 분사기는 실을 매듭의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공정 사이의 작업변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실은 사철 바늘에서 고리 바늘로 이동한다. 작은 구멍이 뚫린 레버가 고리바늘에 의해 멈춰졌을 때, 홀더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매듭이 만들어진다. 엇갈린 바늘땀의 경우, 압축 공기 노즐이 사철바늘의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하고 실 매듭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더 훌륭

한 작업을 위해서 벤추라MC는 연속적으로 생산할 때 열접착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각 스캔 시스템인 Asir3은 보조 테이블에 설치돼 펼쳐진 내지를 안쪽부터 제어한다. 내지들이 올바른 순서대로 정렬됐는지, 알맞게 펼쳐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벤추라MC는 동력 설비를 갖춘 폭 세팅을 제공한다. 따라서 작업 전환 시간이 더 짧아지고 정확성도 향상된다. 모든 설정값은 중앙 제어판에 의해 조절된다. Ⓞ



1. 사업개발팀장인 헬렌 맥클레이씨(왼쪽), 경영자 이안 맥커리씨(가운데), 물러마티니 아일랜드 본부장 마이클 머피씨가 GPS컬러에 설치된 벤추라MC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GPS컬러에 설치된 후 첫 시운전 중인 벤추라MC.
3. 벤추라MC는 짧은 작업 전환 시간과 세밀한 셋업 정확도로 GPS컬러의 기장인 캐니 모닝씨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